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인도자: 각 가정의 대표

목 도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

찬 송 예수 우리 왕이여 다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인도자

말씀봉독 시편 24편 7-10절 다함께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중신교회
Joongshin Cell Church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낼 때 지은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외친 것은, 언약궤가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읍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행차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90도로 허리를 숙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존대였습니다. 닫혀 있는 모든 문들도 다 열어야 했고, 왕이 행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치워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언약궤가 성읍에 들어갈 때, 성읍의 문들을 향해 문을 열라고 외친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니 열른 왕을 맞이할 태세를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다스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고, 하늘의 임재가 있고, 열방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2:7-9)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태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앞에 가족원 모두가 무릎 꿇어야 하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모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늘의 임재가 있고, 그동안엔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시고 자비의 왕이시고 용서의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 축복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 승리가 없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이 조상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기리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문의 왕으로 좌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가정에 복이 넘친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선포>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세요. 왕 앞에 무릎 꿇겠다고 선포하세요.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